

지상중계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2004년 5월 20~22일,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

한국불교사 '주변' 에서 '중심' 으로

한국비구니 집중 조명 첫 국제학술대회 ... 주목받은 논문 많아

의의 · 성과 · 과제

한국 비구니 주제 첫 국제학술대회

국내에서 한국 비구니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600년 한국 불교사에서 비구 혹은 지배층 남성이 기록한 역사 속에 등장하는 비구니를 찾기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02년 3월 미국에서 열린 아시아 학회의 '한국 비구니에 대한 연구: 학제간 연구의 전망'이라는 패널에 이어 국내 최초로 열린 비구니 주제 국제학술대회였다.

박교수는 "비구니는 대제-비구간의 분쟁이 끝난 1970년대 이후에도 종권 다툼을 계속하고, 최근까지도 문종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끊임없는 분쟁에 에너지 소모한 반면 비구니는 자신들만의 교육, 수행 시스템을 설립하는데 주력해왔다"고 평가했다.

서양 한국 불교학 연구 학자 총망라

이번 대회에는 서양에서 한국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병현(서울대 교수)도 "이번 대회는 로버트 버스웰, 존 조르겐센(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헨릭 소렌슨(덴마크 코펜하겐 불교학연구소), 조은수(미시간 대학교) 교수 등 한국 불교를 전공한 대표적인 학자들이 총망라돼 더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박진영(아메리칸 대학교), 박포리(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김영미(영남대학교), 최병현(서울대), 김영미(이화여대) 교수와 혜원 스님(동국대 교수)은 모두 한국불교 전공자들이다.

흥미로운 주제, 새로운 논문들

이들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시대를 주

제별로 다양하고 새로운 논문을 쏟아냈고, 적극적인 논평도 이어졌다. '현대 한국 비구니 사찰의 설립에 대한 고찰'에서 정화를 기준으로 비구니 승단의 형성에 대해 살폈다.

박교수는 "비구니는 대제-비구간의 분쟁이 끝난 1970년대 이후에도 종권 다툼을 계속하고, 최근까지도 문종간의 주도권 싸움으로 끊임없는 분쟁에 에너지 소모한 반면 비구니는 자신들만의 교육, 수행 시스템을 설립하는데 주력해왔다"고 평가했다.

비구니에 비해 훨씬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비구니들은 개인의 혜택을 도모하기 보다는 공동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설립된 비구니 사찰에서 비구니들은 자신의 교리 공부와 선 수행을 비구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은 자족적인 그룹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에 대한 논문도 4편이나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혜원 스님(동국대 선학과 박사과정)은 '대행 스님의 수행관'에서 대행 스님의 수행관을 '주인공 관'이라고 규정하고, 수행의 단계와 특성을 살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대행 스님의 수행관에서 주인공과 믿음의 상호작용은 보조 지능의 '회광반조(廻光反照)'에, '세 번 죽음'은 보조 지능의 '정해쌍수'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한

다"고 논평했다.

또 청고 스님(한마음국제문화원)은 '대행 스님의 힘이 없이 하는 도리'에서 대행 스님이 자주 사용하는 '힘이 없이 한다'는 표현에 대해 고찰했다. 이에 대해 조르겐센 교수는 "보다 객관적인 시선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르겐센 교수는 "정신분석학이라는 과학적 사고로 종교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철저한 근거를 제시해야 과학교육을 받은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독교 목사의 딸인 동시대에 대표적인 신여성이었던 김일엽 스님(1896~1971)이 불교에 귀의한 삶을 통해 불교의 근대성을 고찰한 박진영 교수의 '김일엽: 한국 불교와 근대성의 또 하나의 만남'은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논문 가운데 하나였다.

박교수는 "작가, 여성운동가, 여승 등 김일엽의 다양한 삶은 불교적 사고양식이 근대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박교수는 "김일엽이라는 여성의 경험을 불교와 근대성에 대한 담론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대 한국불교를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 비구니의 삶과 그 불교사적 의미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닦을 열었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한국 비구니'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의 불교 전통에서 본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한마음선원 안양 본원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불교사에서 '주변'에 머물렀던 한국 비구니를 그 '중심'로 이동케 하는 학문적 토대를 마련한 역사적 전환점이

에 충분히 보인다. '한국 비구니'를 집중 조명 첫 번째 국제학술대회로 한국 불교학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서양 학자들과 동아시아 불교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비구니사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주제의 논문을 다수 발표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미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 생중계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통역돼 참석자들의 편의를 돕고 국제대회다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참석학자 집단인터뷰 한국 불교와 비구니

"동아시아 불교연구에 한국불교 이해가 필수"

학술논문에서 깊이는 필수지만, 넓이는 선택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 10여명은 5월 19일 양재 교육문화회관에서 가진 집단인터뷰에서 한국 불교와 한국 비구니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개진하며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비구니 승단이 16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생명력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포리: 현대의 한국 비구니 승단은 한국 전쟁으로 중추적 시스템이 파괴된 상태에서 시작됐다. 비구니 개인들은 사찰 밖으로 나와 구걸을 해야 했고 육체적

불교에 대한 호기심도 증가할 것이다.

- 로버트 버스웰: 현재 미국 주요대학에서 불교강좌는 수백명의 학생들이 신청할 만큼 큰 인기다. 그러나 한국 불교학을 비롯한 한국학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변화 중이고 빠르게 바뀔 것이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서양인들은 번역물에 의존해 한국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있는데, 한국 불교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텍스트의 영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에서 한국불교학의 발전 전망은 밝은 것입니까?

- 로버트 버스웰: 그렇다. 매우 밝다. - 헨릭 소렌슨: 한국 불교에 대한 관심



왼쪽부터 미리암 레버링, 캐서린 류(미시간 주립대학교), 바버라 루쉬, 로버트 버스웰, 그레이스(본 목조선수행자), 박포리, 헨릭 소렌슨 교수.

- 버스웰 서양대학 불교강좌 큰 인기
- 박포리 한국불교 역할 · 장점 잘 물리
- 소렌슨 한 · 중 · 일 불교연구 계속 증가
- 루쉬 여성들 연대로 세계화 견인

인 노동에 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회생과 수교에 의해서 비구니 승단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헨릭 소렌슨: 근본적으로 한국 비구니 승단은 수행에 대한 외부적인 관심이나 감입을 받지 않았다. 이것이 한국 비구니 승단의 존재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많은 비구니 승단이 부차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는 의미도 된다.

- 그레이스: 한국 비구니 승단이 변창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비구니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심오한 수행의 근본을 가르쳤던 점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팔경계법을 비롯한 경·율·이 비구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헨릭 소렌슨: 팔경계법만은 문제의 아니다. 팔경계법은 율장의 사상과 실재를 보여준다.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 불교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율장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팔경계법 속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관점에서 율장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서양 학자들에서 '불교는 일이다' 한국 불교는 모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 박포리: 동아시아 불교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한국불교 위상은 중요하다. 많은 서양인들은 중국 불교가 일본 불교로 전파된 것만 알지, 한국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불교가 불교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제는 동아시아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의 최두는 세계화다. 한국 불교가 세계화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 충고한다면?

- 바버라 루쉬: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 최초의 비구니는 한국을 불교의 스승으로 생각했다. 그 스승의 글에 따르면 스님은 한국에 와서 한국 비구니에게 불교를 배웠다.

지금 많은 한국 비구니들이 일본에 와 불교를 배우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불교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유사 깊은 협력 관계가 있었다. 불교를 통한 여성 불자들의 연대는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다.

- 헨릭 소렌슨: 한국 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많은 개혁이 필요하다. 한국 불교가 해외로 나가서 서양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은 마치 기독교 선교사들의 활동처럼 느껴진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한국 불교와 비구니 연구를 계속할 것입니까?

- 로버트 버스웰: 원호스님의 모든 저작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완성할 것이다. 벌써 첫 번째 책이 나왔고 내년에 모든 작업이 끝난다.

- 조은수: 이번 학술대회를 정리하는 책을 발간하겠다. 이 책은 한국 비구니 관련 첫 번째 영문서적이 될 것이다.

- 박포리: 일엽, 인홍, 대행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의 삶과 수행을 연구해서 현대 한국 비구니 승단이 어떻게 성립했는지를 밝혀내겠다.

정리=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5월 20일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 국제학술대회 개회식에는 1백여 비구니스님들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했다. 前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 광우 스님(두번째줄 맨왼쪽)과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명성 스님, 한미음선원 주지 혜원 스님.



이번 국제대회에서는 세계적인 불교 석학 등 국내외 학자 50여명이 참석, '한국비구니의 수행과 삶'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